

월요광장

대제학 벼슬도 양보한 호남 사람



박 석 무
다산연구소 이사장

사람은 본디 두 가지의 큰 욕심을 지니고 살아간다. 재물에 대한 욕심과 권력에 대한 욕심이 그것이다. 그 두 가지 욕심은 본능에 가까운 정도여서 인격의 수양과 인성의 도야를 통한 절제가 없다면 그 두 욕심의 함정에 빠져 인간다운 삶을 구현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인격과 인성의 수양과 도야를 통해 두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삶을 살아야 한다.

조선시대, 영남의 퇴계 이황(1501~1570)과 호남의 사암 박순(1523~1589)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퇴계는 학자로서 큰 명성을 날렸고 사암은 시인이자 정치가로서 큰 이름을 세상에 전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퇴계는 동아시아의 국제적인 학자로 크게 이름을 전하고 있

는 반면, 호남 사람 박순은 역사를 전공하는 사람이나 기억할 뿐 일반인들은 대부분 잘 알지 못한다. 더구나 근대에는 영남 세력이 커져서 영남 인물들은 빛을 보지만 여타의 인물들은 크게 현양되지 않아 갈수록 잊혀 가니 더욱 안타까울 뿐이다. 호남인들은 살가에도 고달파 호남의 옛 인물들을 지켜세울 겨를조차 가질 수 없으니 더욱 마음이 아프다.

조선시대에 호남에는 퇴계의 친구이자 학문 수준도 퇴계에 버금가던 허서 김인후(1510~1560)도 있었고, 후배이지만 학술적 경지는 큰 차이가 없이 높은 수준에 이르렀던 고훈 기대승(1527~1572)도 있었다. 하지만 그 분들의 명성은 퇴계와 비교할 수 없는 낮은 수준에 이르고 말았으니 그 점 또한 안타까운 일의 하나다.

그러저런 일을 곰곰이 따져 보면 호남인이 당하는 푸대접이 생각되어 더러는 가슴이 답답해질 때가 많다. 그렇지만 옛날 우리 호남 사람들이 영남 사람들에게 보여 주었던 존경과 겸양의 정신을 생각해 보면 호남인의 긍지를 느끼면서 큰 자부심을 느끼는 때가 많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박순은 호남의 나주 출생이다. 조선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기묘명현의 한 분인

늘제 박상의 조카이자, 장원급제로 높은 벼슬에 올랐던 육봉 박우의 아들로 태어났다. 박순은 본디는 광주 사람이지만 아버지가 나주로 장가가 나주에 살면서 나주에서 태어났으니 나주 사람이 되었다. 사람은 31세에 아버지의 뒤를 이어 과거에 장원급제한다. 아버지와 아들이 장원급제했다는 것도 특이한 일이다.

곧고 바르게 벼슬하던 박순은 권력에 도취되어 온갖 악행을 저지르던 권신 윤원형과 이양을 퇴출시켜 천하에 이름을 떨친 직신이 된다. 46세인 1568년 마침내 온갖 벼슬의 꽃이라는 대제학에 오른다. 이때에 바로 역사적인 일이 벌어진다. 그해 68세이던 퇴계는 대제학의 아래 벼슬인 제학으로 있었는데 대제학에 임명된 박순이 어전에 올라가 임금에게 간곡한 진언을 한 것이다. 학문적으로도 높은 수준에 이르고 연령도 22세나 높은 퇴계는 아래 벼슬에 있고, 박순이 대제학에 자리함은 예의에 맞지 않나면서 박순은 대제학을 사용하고 퇴계에게 양보하겠다는 청이었다. 마침내 임금은 박순의 겸양의 정신을 받아들여 퇴계에게 대제학 벼슬을 내리고 박순의 임명을 거두게 되었다.

이 어찌 간단한 일이며 쉽게 넘어가고 말 일인가. 미관판직의 벼슬도 서로 먼저

오르려 싸우고, 한 번 권력에 오르면 영원히 붙들려고 버티는 것이 사람의 욕심인 대제학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벼슬에 임명되고도 그것을 선배에게 양보하는 아량과 겸양의 정신을 발휘했으니 그게 어디 보통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말할 것도 없이 퇴계는 대제학에 임명되어 대제학에 오른 경력만 인정받고 곧바로 사임하여 다시 대제학은 사암에게 돌아갔지만, 대제학을 양보한 사암의 고결한 뜻은 천추에 빛날 위업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이렇게 아름다운 인격으로 인해 사암은 임금의 신임이 더욱 두터워졌고 온 국민의 추앙을 받게 되어 벼슬이 승승장구로 오르며, 시인의 명성에 뛰어난 재상의 인망까지 겹쳐져 모두의 멘토가 되었다.

대제학·이조판서 등의 벼슬을 거친 뒤 우의정·좌의정·영의정의 재상으로 14년을 지내다 은퇴하였다. 재물과 권력이라는 욕심을 제어하여 위대한 인물의 반열에 오른 박순, 그는 자비존인(自卑尊人) 즉 자신은 낮추고 남을 높여야만 자신이 높아진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었다.

호남 사람은 영남인을 높여 주었다. 훌륭한 사람은 어디에서도 대접받는 세상이 온다면 좋겠다.

법조칼럼



정 철 진
변호사·P&J partners 법률사무소

60대의 피고인은 영구임대아파트에서 보증금 200만원에 5만원의 월세를 내고 살았다. 직업은 고물수집이었다. 고물수집으로 벌어들이는 30만원과 기초생활수급비가 한 달 수입의 전부였다. 한때 피고인과 그의 아내는 탄광촌에서 열심히 일해 저축까지 받은 적도 있었지만, 큰아들이 뺑소니를 당해 7년간의 소송비용과 수술비를 다 들먹었다.

피고인은 당뇨와 고지혈증, 혈액순환 장애로 손발이 저리고 밤에 자면서 쥐가 나 이제는 고물수집도 어려웠다. 피고인이 혼자서는 아니었다. 암 수술과 척추골절 수술 그리고 꼬리뼈 제거수술을 받은 후 대부분을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처와 10살에 뺑소니 사고를 당해 6번의 머리수술을 한 큰아들을 부양해야 했다. 이제는 30대가 된 큰아들은 간질이 있었고, 6개월

피고인의 자존심

을 훈련시켜서야 겨우 집에서 병원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자신의 간질약을 받아올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었다.

하루는 폐품을 주우러 가다 간혹 길에서 눈인사 정도 나누었던 70대의 노인과 마주쳤다. 노인은 “짜여기 눈가에 플라스틱이 들어 달 전부터 버려져 있단디, 플라스틱도 취급하면 가져다 팔아보소”라고 말했다. 그 곳이 어딘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자 노인은 친절하게도 같이 가 주겠다고 했다. 피고인과 노인은 피고인의 오래된 트럭을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 차디찬 겨울날 오후 4시경이었다.

노인의 말처럼, 커다란 마대자루에 돌으로 찢단되거나 깨진 PVC관이 잔뜩 쌓여 있었다. 종이컵이나 과자봉지, 버려진 현 운동화와 함께, 돌은 피고인의 고물트럭에 조각나 플라스틱을 실었다. 어느 정도 싣다보니 자루 아래쪽에는 아직 쓸만한 것들이 있어 그만 일을 멈추고 고물상으로 향했다. 고물 플라스틱은 kg당 250원, 50kg 잡고 고물상 주인은 1만2500원을 피고인의 손에 쥐어 주었다. 1만2500원, 하루벌이는 한 것이다.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기관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올해 농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농사가 시작되면 끌리고 낫된 플라스틱 배관을 누군가 훔쳐갔다는 것이다. 큰

처의 CCTV 덕분에 수사는 어렵지 않게 마무리 되었다.

피고인에 대한 죄명은 ‘특수절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범은 위형성이 가중된다 하여 일 반절도에 비해 무겁게 처벌한다.

필자는 피고인이 1심에서 이미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항소한 사건에서, 극선변호인으로 선정되었다. 세상에 이런 일로 수사해서 기소한 수사기관과 더군다나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한 법원에 화가 났다. ‘수사기관 의 탓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사건이 이 지경이 되기까지 합의하지 못하고 부양 가족은 어떡하라고 구속까지 되어버린 피고인에게 더 화가 났다.

피고인은 작지만 다부진 체격이었다. 자존심으로 툭툭 뭉텅다는 인상을 주었다. 표정은 어두웠으나, 공손한 태도였다. 말수는 거의 없었다. 재소자들 가운데 소위 ‘판사’가 알려졌는지, 사건에 자신의 트럭만 보이지 피고인은 보이지 않으므로 1심 재판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불쌍한 피고인의 아내와 큰아들이 떠올라 감정이 격해져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피해자한테 백번이라도 찾아가 잘못했다고, 몰라서 한 일이라고 무릎을 꿇는

한이 있더라도 용서를 구했어야지, 아무 일도 아니게 끝날 사건을 이 지경까지 몰고 왔느냐고 다그쳤다. 담당한 피고인과 달리 내 목소리에는 눈물이 섞여 있었다.

얼마 후 피고인이 20만원을 보내왔다. 피해자와 대신 합의를 부탁한다고 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부농(富農)이라 하였다. 주위 사람들의 얘기로는 일대 토지의 절반 이상이 피해자의 소유라고도 했다. 피해자도 고집이 보통은 아니었다. 왜 합의를 해 주지, 그만한 일로 사람을 교도소에 들어가게 했느냐고 물었다. 구속되기 전, 한 번은 피고인이 찾아왔다고 한다. 추수 막바지로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저만치 떨어져 있어서 얼굴도 안 마주치고 한다는 말이, ‘쓰도 못할 것 가지고 신고했다’고 하길래 무슨 합의 보러 온 사람의 태도가 아니라 패심해서 안 해 줬단다.

필자는 물었다. 피고인에게 있어서, 크게 잘못된 것 같지도 않은데 용서를 구한 다거나 남한테 풀린다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세상에서 밀리고 밀려 이제 고물수집에 나서기까지, 몇몇한 자존심으로 역경을 견딜지언정 남한테 물질적으로 손을 벌리거나,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것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 항소는 기각되었다.

기 고

스포츠마케팅과 도시 경쟁력



조 영 택
2019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사무총장

스페인 바르셀로나의 인구는 160만명. 2016년 한해에만 이들의 20배가 넘는 3200만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다. 바르셀로나가 유럽의 대표적 관광지로 발돋움한데는 스포츠마케팅의 역할이 컸다. 축구는 물론 올림픽(1992년)과 세계수영선수권대회(2013년) 개최 이후 관광도시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했다. 올림픽 당시 선수들의 불평을 무릅쓰고 마라톤 코스를 가우디 양식의 건축물과 피카소 청색시대의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피카소 미술관 등으로 잡아 전세계에 공짜로 광고했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는 역대 최다인 181개국에서 2293명이 찾았다. 전 세계에서 209개국 이 회를 중계했고, TV 누적 시청자는 5억1000만명에 달했다. 바르셀로나는 이처럼 스포츠 마케팅의 도움을 톡톡히 봤다.

도시브랜드도 재탄생됐다. 스페인 출신의 천재 디자이너 하비에르 마리스칼

이 올림픽 때 만든 로고 덕분에 바르셀로나는 술, 하늘, 파도의 도시라는 별명과 함께 자유로운 휴양 도시 이미지를 갖게 됐다. 이 같은 이유로 세계적인 도시들은 스포츠마케팅과 연계한 도시경쟁력 강화 방안을 앞다퉀 마련하고 있다. 이는 멜버른(2007년), 로마(2009년), 상하이(2011년) 등 지난 10년간 세계수영대회 개최 도시만 봐도 잘 알 수 있다.

2019년 대한민국 광주가 주목받고 있다. 2015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에 이어 국제수영연맹(FINA)이 주관하는 최고 권위의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월드컵 축구, 세계 육상선수권대회 등과 함께 단일 종목 3대 스포츠 이벤트로 꼽힌다. 국가대표들이 겨루는 ‘ 챔피언십’과 세계 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 대회’에 한 달 동안 207개국에서 1만5000여명이 참가한다. 세계 선수권은 17일, 마스터즈대회는 12일간 열리기 때문에 한 달가량 지구촌 수영 축제가 광주에서 벌어지는 셈이다.

수영의 역사와 위상은 올림픽과 함께 한다. 1896년 제1회 아테네올림픽대회 때부터 육상과 더불어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현재는 경영, 다이빙·하이다이빙,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장거리 레이스 인 오픈 워터, 수구 등 총 6개 종목에 76개의 금메달(전체 금·은·동 228개)을 놓고 경쟁한다.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1973년 옛 유고슬라비아의 베오그라드에서 첫 대회가 열린 뒤, 2001년 제9회 일본 후쿠오카 대회부터 격년제로 출수해에 치르고 있다. 2015년 러시아 카잔 대회로부터 현역 엘리트 선수들이 출전하는 세계선수권과 전 세계 수영동호인들이 참가하는 마스터즈대회가 통합 개최되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과는 얼마나 될까. 광주에는 대형 경기장 등 각종 인프라 시설이 대부분 갖춰져 있다. 이는 기존 U대회 인프라 등을 활용해 신규 시설투자가 가장 적은 저비용대회, 스포츠마케팅의 모범 사례로 치를 수 있다는 의미다. 수영 대회 선수촌 역시 낙후된 단지를 재건축하는 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생산 유발 효과 2조4000억원, 취업 유발효과 2만 4000명 등의 경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스포츠를 경제성장으로 재단하면 다른 가치들을 놓칠 수 있다. 외국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수입 또한 크게 늘고, 도시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는 등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 대회 맨 세계여약 10억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한다고 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앙림동·동명동, 1913 송정시장·대인시장·남광주시장, 무등산, 프린지페스티벌 등 광주의 명소와 축제가 세계수영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에 알려질 수 있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로 잘 알려진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중이다. 세계수영대회를 통해 ‘국제 문화스포츠’의 도시로 자리매김 할 수 있다.

광주의 핵심가치는 물론 역사·문화와 결부된 스토리 개발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제임스 트윈첼 미국 플로리다대학교 교수는 저서 ‘대학 교회 박물관의 브랜드 마케팅 스토리’에서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차별화를 시도하게 되는데, 이런 차별화의 방식이 바로 ‘브랜드’가 되는 것이다”고 말했다.

세계수영대회의 주인은 광주시민이다. ‘근자열 원자래’(近者悅 遠者來)처럼 ‘지역 주민이 즐겨야 멀리서도 찾아오는’ 이치다. 광주시민들의 힘으로 역사를 만들 수 있다. 광주는 그동안 월드컵 4강화와 U대회 성공 개최의 신화를 이룬 곳이다. 2019년은 3·1독립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0주년이 되는 해다. 미국·중국·일본·러시아·북한 등 전 세계수영선수들과 동호인들이 광주에서 ‘물’을 통해 하나가 되면, 광주는 화합과 평화의 새로운 ‘물길’을 열 수 있다.

社 說

운명의 한 주… 코앞으로 다가온 탄핵 선고

헌법재판소가 석 달 가까이 지속한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의 판단을 끝내고 이번 주에 최종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토요일에 이어 일요일인 어제도 출근해서 탄핵 여부를 결정할 법리를 검토했다. 평의가 열리지 않는 휴일인데도 막바지 법리 검토를 한 것은 결정문 작성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어찌 됐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두가 궁금해 하는 것은 탄핵 여부가 언제 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현재가 언제 선고를 내리느냐가 조미의 관심사인데,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이 13일이고 그 앞에 토요일과 일요일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주 금요일인 3월 10일쯤으로 선고일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대통령 직무정지로 인한 헌정 사상 두 번째 국정 공백 사태를 최소화하기 위해 그동안 숨 가쁘게 달려왔다. 작년 12월 세 차례 준비 절차 후 지난 1월 3일 첫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

재판에 돌입했다. 총 20차례 변론을 통해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의 변론을 청취했고, 증인 25명을 소환해 신문했다.

또한 이들을 상대로 박 대통령의 13가지 탄핵 사유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달 27일 최후진술을 끝으로 모든 변론을 마무리 지었다. 지난 1월까지 탄핵 심판을 이끌어 온 박한철 전 소장이 퇴임하면서 헌법재판관이 9명에서 8명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이제 탄핵 열차는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다.

하지만 탄핵 심판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선뜻 예측하기 어렵다. 물론 80% 이상의 국민이 탄핵에 찬성하고 있지만 가까이 각하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의 진상이 대부분 드러난 만큼 탄핵 인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제 헌법 재판관 8명이 길이 역사에 남을 현명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

해양수산도에 걸맞은 정부 지원 절실하다

전남을 흔히 ‘해양수산도’라고 부른다. 섬과 갯벌 등 자연자원은 물론 전복·김·미역 등 수산물 생산을 포함한 해양자원의 절반가량이 전남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전남이 해양수산도에 걸맞은 위상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지원 부족은 갈수록 인프라 격차를 키우고 부가가치를 지역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지원 부족이 가장 심각한 분야가 항만 인프라 투자다. 유독 우리 지역에만 정부가 ‘선수요 후투자’ 전략을 고수하면서 광양항이 인천항에 이어 3위 항만으로 고착화되고 있다. 광양항을 부산항과 함께 국내 2대 항만으로 키우겠다는 ‘투 포트’ 전략은 구두선에 그친 지 오래다.

정부는 2020년까지 신규 항만 인프라에 14조6412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지만 이 가운데 전남 지역 투자액은 5.

5%에 불과하다. 전남 지역 항만이 국내 물동량의 20%를 책임지고 있지만 정부는 그만큼 대접을 하지 않고 있다.

수산물의 생산·가공·유통·수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은 것도 문제다. 전남은 국내 수산물의 52%를 생산하면서도 지역 내에서 가공하고 수출하는 비중은 각각 18%와 7.6%에 그치고 있다. 생산만 전남에서 할 뿐 타지역에서 가공하다 보니 부가가치가 외지로 유출되고 있다. 산지거점유통센터가 완도 1곳에 불과하다. 산지거점 유통센터 투자도 1곳에 불과하다.

결국 항만 인프라와 수산물 가공 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는 정부 지원 없이는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해양수산도에 걸맞은 지원을 해야 한다. 전남 수산물이 산지에서 가공되고 인근 거점유통센터를 거쳐 광양항 등 도내 무역항을 통해 수출돼야 부가가치 수혜를 지역민이 누릴 수 있다.

無 等 鼓

장벽은 영역이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설치된다. 하지만 장벽이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오히려 국가가 쉽게 무너졌다는 사실은 역사 속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튼튼한 장벽을 과신한 탓에 방심이라는 빈틈이 생기고, 장벽 건설 과정의 막대한 비용 등으로 국력이 쇠잔해지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후, 프랑스 육군 장관 앙드레 마지노는 독일군의 공격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양국 국경 사이에 거대한 시멘트 장벽을 쌓았다. 이렇게 장벽으로 구축한 요새선을 마지노선이라 부른다. 무

엇이 무너지면서 750km에 달했다. 당시 최고의 축성 기술을 동원해 10년 동안 총 공사비 160억 프랑을 쏟아부어 난공불락의 요새 방어선을 구축했다. 이 시기 독일은 히틀러가 등장해 전쟁 준비에 열안이었으나, 프랑스는 마지노선을 믿고 별다른 방비를 하지 않았다. 이에 독일은 마지노선 돌파를 감행하지 않고 대신 벨기에를 통해 후면에서 공격함으로써 프랑스를 손쉽게 점령하고 만다.

전국을 통일한 진나라 시황은 끊임 없이 침입하는 북방의 흉노족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을 쌓았다. 장성이 어느 정도 완공되자 진나라는 마음을 놓았다. 그러나 중국이 통일된 지 15년, 진 시황이 죽자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내부의 혼란이 일면서 진나라는 망국의 길에 방심이었다. 언젠나 외부의 적보다는 내부의 적이 치명적임을 보여준 사례다.

통독 전 통독은 지난 1961년 서독으로의 자국민 이탈을 막기 위해 40여km에 달하는 베를린 장벽을 세웠다. 그러나 수많은 동독인이 서독으로 탈출했고, 이 과정에서 136명이 총격 등으로 사망했다. 결국 통독 국민의 국가에 대한 믿음이 무너지면서 콘크리트 담장도 파괴됐다. 역시 장벽은 체제를 유지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았음이 입증된 것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멕시코와의 국경에 장벽 건설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장벽이 마약과 범죄에 대한 효과적 무기가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고 한다. 트럼프의 장벽은 세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역사가 주는 예언을 볼 때 완공되더라도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채희중 사회2부장chaee@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광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우편물 유통 10,000원 1부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